최영규 "해외연수 10억 증액… 필요한가?"

도교육청 예산 심사

이해숙 "자유학기제 일회성"
양용모 "현장점검·추계 필요"
강병진 "인건비 불용액 100억"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전라북도교육청 2018년도 예산안 에 대한 이틀째 심사를 진행했다.

27일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위 의원들은 교육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관련예산이 정확하게 분석되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투입될 수 있도록 집중 추궁하고 독려했다.

특히, 해외연수 등 불요불급한 예산과, 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각 부서별로 2018년에 책정한 해외연수 예산을 종합해 보면 2017년 보다 10억 가까이 증액"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안전 등 교육현장에 집중해도 부족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해외연수 예산 증가가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관련 예산 역시 다양하게 투자되고 있지만, 기관방문이나 체험 등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요청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예산이 투입되는 학교현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점검과 추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예를 들어 토론학습실 구축을 위해 3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미 많은 학교가 토론식 수업을 진행해오면서 토론시설 역시 잘 갖추어진 학교가 많다"고 지적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심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의 구체성을 확보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해 성과를 확인한 후 차츰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2017년 제3회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매년 인건비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를 지적했다.

강병진(김제2) 의원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인건비 추계에 대한 정확성을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인건비 불용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지적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임에도 도교육청의 예산 추계가 여전히 철저하지 못하다고 질타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평화통일특별위원회 본격 운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28일 본격 운영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평화통일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자형)는 통일 시대 대비와 평화통일기반 구축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꾸려졌다.

특히 중앙과 지방 간 통일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도민들의 통일의식제고를 높인다는 취지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그 첫걸음으로 28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촉식과 강연회를 가졌다.

위촉식에서는 고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총 60명이 선임됐다.

이어 하정열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 나서 '평화통일과 우리전북'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하정열 원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는 위중한 상태다. 무엇보다도 북미 간에 대결 국면은 한반도를 긴장과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다"면서 "한반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춘진 위원장은 위촉식과 강연회에 앞서 격려사를 통해 "도당 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지역통일 운동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김관영, 의원 '군산 조선산업 지원대책 점검 간담회' 열어

군산조선소 폐쇄 5개월, 범정부 대책 현실화 작업이 본격화 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4개 부처와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 등 금융여신 관계 기관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군산지역 조선 산업 지원 대책 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으로 국무조정실이 12월 초 범정부 점검회의를 개최해 후속대책안을 보완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이 대거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의원실의 전언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이 지난주 이사회를 개최하고 RG발급 한도를 기존 한도에 추가해 70억원을 확대하기로 한 사실이 이날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소조선사가 국내외 물동량 발주 시 반드시 필요한 선수급 환급 보증(RG)은 조선업계 선순환의 마중물이자, 어려운 지역 중소조선사의 동아줄이라는 평가도 과언이 아니라는게 업계 인식이다. 이에 이번 결정이 업계에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여타 정책금융 당국 특히, 시중 은행들이 적극적인 조선 산업 지원 방안도 함께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산업은행에서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양용호 전라북도 도의원과 전라북도 및 군산시 관계자와 함께 군산지역 조선소 업체 대표(이용식-연수중공업)와 협력업체 대표(이홍렬 JY중공업)와 함께 학계를 대표해 군산대 문병영 교수가 참석해 정책금융당국에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요청 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배우 문성근과 방송인 김미화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MB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예술인들, MB에 위자료 소송

문성근·김미화 등 34명 법원 기자회견… "40명 참여 의사…향후 청구금액 확대"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업에서 배제당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전에 돌입한다.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4명은 2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3차장,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 등 'MB국정원' 주요 인사 3명,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소장 접수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문화예술계를 조작하려 한 것이 확인됐다"며 "범죄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시절 잘못한 일이 있었다는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라며 "적어도 지난 정권에서 잘못한 일은 사과드린다고 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이어 "한 국회의원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 '물 들어오니까 배 띄운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9년 동안 비를 맞았고 집에 물이 차서 고통에 허덕였다"고 토로했다.

문씨는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 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법자인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에게 구상권 청구를 바란다"며 "인간이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자유, 평등, 박애, 평화, 예술이 아니라 돈인 사람에게는 자산을 축내주는 게 가장 합당한 응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양재 측은 "총 40명이 소송 의사를 밝혀왔고, 위임장을 취합하는 대로 이날 중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인의 인격권까지 침해했다고 생각해 위자료를 청구했다"며 "추가로 피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청구 취지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마을활성화연구회' 당진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현장방문

전북도의회 '마을활성화연구회' 위원들이 28일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타시도 마을기업의 운영사례를 배우는 등의 연구활동을 펼쳤다.

백경태 대표의원(무주)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도내에도 다양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가 약 75%에 이르고 있어 각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묘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연구회는 지난 2012년 전국 우수마을기업에 선정된 충남 당진의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평균연령 70세 이상의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이 마을 특산물인 매실을 활용해 연 매출액 10억원에 이르는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청취했다. 또한 마을기업의 생산시설들을 둘러보고 체험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위원들은 도내 100여개의 마을기업들이 백석올미영농조합과 같이 마을과 상생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백 대표의원은 "오늘 방문한 마을기업은 마을 특산물인 매실을 가공해 한과를 생산, 판매해 마을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중심축이 되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도내 마을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文대통령, 내일 한·스리랑카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국빈 방한 중인 마이쓰리팔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과 한·스리랑카 정상회담을 한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핵 공조방안이 될 전망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수교 40주년을 맞이한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30일까지 국빈 방문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핵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나눌 것 같다"고 말했다.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비공식 첫 일정으로 조계사를 방문한 시리세나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인 29일 오전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국빈방한 일정을 소화한다. /뉴시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14살 소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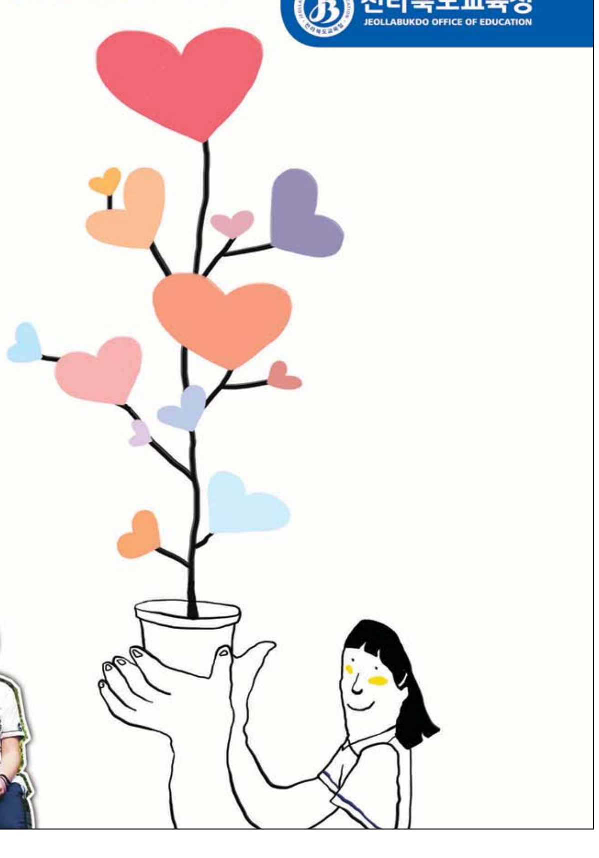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